

# 예배 WORSHIP

February 24, 2019 11:30 am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주일예배

## 사역과 행사 안내

### 하나님 앞으로

- 찬양과 경배 (찬양팀과 함께)
- 예배기도 / 오정은 집사
- 찬양 / 우릴 사용하소서
- 주님 가르치신 기도

### 말씀과 결단

- 성경말씀
- 고린도전서 4:14-16
- 나의 신앙과 인생의 발자취는?**
- 말씀선포 / 김성배 목사
- 결단의 찬송
- 찬송 458장 /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통일찬송 513장)

### 현신과 나눔

- 봉헌 / 유동숙 집사, 최내권 집사
- \*봉헌찬송 / 나의 생명 드리니 - 4절

### 삶과 세상으로

- \* 가서 제자 삼으라
- \* 죽도 / 김성배 목사

〈\*표는 모두 일어 섭니다〉

예배시간 10분전 휴대전화 점검과 묵상으로 준비합시다.

진정한 예배는 교회문을 낙서는 순간부터 시작 됩니다.

## 금요 찬양예배

8:00 pm

기도 : 최선운 집사

말씀 : 김성배 목사 / 출애굽기 7:1-13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 복상에 세이

### 영화 [극한 직업] 단상 - 잃어 버린 나의 사명을 찾아서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꿈꾸며 나는 현신과 사역이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소망한다. 왜냐하면 때로 분주히 사역에 매몰되면 본래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궁극에는 실망하고 피곤할 때가 있기 때문이다. 정말 그렇게 본래의 목적은 사라지고 열심을 내고 있다면 가장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내가 아닐까.

한국 영화 [극한 직업]을 봤다. 고달픈 형사들의 활약이 유치하지 않은 유머 코드로 잘 버무려져 쉴 새 없이 웃었다. 성과가 없어 해체 위기에 처한 마약반 형사들이 '대박'인 마약조직을 잡으려고 잠복 근무를 하다가 얼떨결에 치킨 집을 인수해 잠복지로 삼는다. 부인 몰래 퇴직금까지 넣은 고반장(배우 유흥룡)은 사명에 미친 것 같다. 의리 하나로 따른 부하 형사들도 그렇다.

그런데, 아니 이럴 수가. 수원 왕 갈비 양념을 적용한 치킨이 대박이 난다. 범인을 잡으려 잠복하던 치킨 집은 손님이 넘쳐난다. 유도 국가대표 출신의 형사는 닭을 잡고, 불타는 사명감의 막내 형사는 양파를 깨며 눈물을 흘리며. 터프한 여자 형사는 서빙을 한다. 고반장은 빨래만 넣어 주던 Gucci 쇼핑백에 진짜 Gucci 가방과 현금 다발을 주며 돈의 맛에 길들여진다. 그러니 한 형사가 항변한다. "치킨 장사하려고 범인 잡는 건지. 범인 잡으려고 치킨 집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 와중에 마약 조직은 이들의 치킨 집을 프랜차이즈로 이용해 유통망을 넓히려 한다. 이 위기의 순간에 이들은 자신의 사명에 다시 목숨을 걸고 범죄 조직과 싸우고 수괴를 잡는다. 수 많은 죽음의 순간에도 살아 '좀비'라는 별명을 가진 고반장은 외친다. "소상공인은 다 목숨 걸고 일해!"

목숨 걸고 일한다는 외침이 여운이 남았다. 범인을 잡는 사명을 다시 찾은 그의 외침은, 돈 맛에 길들여지거나 고된 도전을 회피하며 적당하게 살고 있는 내 모습을 견드린다. 하나님을 믿는 사명이 내 속이 깊이 뿌리 박은 건지. 겉으로만 팬찮은 그리스도인 행세하면서 하나님은 뒷전에 있는 건 아닌지. 주님이 섬김의 교회에 주신 사명은 그저 현란한 수사에 불과한 건 아닌지. 두렵다. 그래, 목숨 걸고 올바른 사명을 쫓아야 하는데.

그래도 피곤하고 낙심되고 때론 시험이 들 때,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올바로 쓰이기를 간구한다면 이기리라고 믿는다. 교회 이름이 '섬김의 교회'인 것도 다시 감사한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사명을 잊지 않게 하니까 말이다. 그래서 다시 섬김의 교회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위해 올바로 쓰일 때 사역이 피곤이 아니라 안식이 되기를 간구한다. 우리의 생업조차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올바로 쓰이기를 기도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 그래야 범인을 잡는 게 목적이지라고 목소리 높이다가도 손님이 들어오니 한 순간에 '어서 옵쇼. 수원 왕 갈비 치킨입니다.'을 외치며 사명을 잠시 잊는 잠복 근무 형사들이 우리의 모습이 안될 것이다. - 김훈태 집사 -

### 한 주간의 기도

'악할 때 자신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두려울 때 자신을 잊지 않은 용기를 주소서. 때로 잘못을 범해을 때는 겸허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낭의 잘못에 대해서는 온유하게 품을 수 있게 하소서.'

### 교회를 섬기는 분들

LEAD PASTOR 김성배 목사  
WORSHIP LEADER 박진성 집사  
MISSION PASTOR 정홍렬 목사  
CHILDREN'S MINISTER 고순제 전도사  
장영현 전도사  
YOUTH MINISTER SAGAR 전도사



"우리가 일어나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 교회와 사역

### 스마트폰 사용을 위한 조언 - 문제는 공예배

시대의 발전 성경책을 누구든지 쉽게 가질 수 있게 된 것의 소중함을 잊은 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들고 가는 것을 번거롭게 여기던 즈음, 스마트폰의 보급은 또 다른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애플리케이션만 깔면 성경책과 찬송책을 읽고 들을 수 있다보니 굳이 무거운 성경책과 찬송책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게 됐다. 한편으로는 언제 어디서든 성경책과 찬송책을 볼 수 있으니 감사한 일이기도 하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로 성경과 찬송을 봐도 될까?** 당연히 봐도 된다. 봄선 안 될 이유가 없다. 보는 것 자체가 나쁠 순 없다. 거부감은 문화적인 차이의 문제일 뿐이다. 문제는 공예배 때도 가능하나 하는 것이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에 있는 성경찬송 애플리케이션 외의 다양한 기능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성경을 보다가 포털사이트에 들어가서 뉴스를 볼 수도 있다. 찬송을 부르다가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를 확인할 수도 있다.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다. 심지어 설교가 따분하다며 게임을 할 수도 있다.

**공예배 때의 바른 태도** 우리는 공예배 때의 바른 태도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의 다른 여러 기능 때문에 예배 외의 다른 유혹에 노출될 수 있다면 제어와 절제가 필수이다. 공예배에 관한 모범은 “예배 시간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하며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행위를 삼가야 한다.”는 정신이 기본이다. 즉, 예배 시간에는 오직 예배 그 자체에만 집중해야 한다. 기도 시간에는 기도해야 하고, 찬송 시간에는 찬송해야 하며, 설교 시간에는 모든 감각기관을 설교자에게로 향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는 예배에 전적으로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며, 예배를 방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국 예배의 경건함을 깨뜨릴 위험이 있다.

**모두 다함께 드리는 시간** 이런 반론이 나올 수 있다. “각자 스스로 제어하게 하면 되지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하기 힘들다. 자기가 능동적으로 하는 포털사이트 확인, 게임 등은 절제 가능할지 몰라도, 누군가가 보내오는 메시지, 여러 가지 소식을 알려주는 알림 등을 스스로 제어할 수 없다는 점에서이다. 더욱이, 공예배는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사람이 함께 모여 드리는 시간이며,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 또한 설교자에게 불편을 줄 수도 있다. 회중석에 앉은 성도가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로 성경을 볼 때, 성경 외에 다른 것을 보는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고 혹여나 다른 것을 본다면 설교자에게 큰 방해가 된다.

**성경 찾기 훈련** 또 한가지 예배의 교육적 효과도 생각해야 한다. 설교 본문을 찾고 설교 중 인용되는 본문을 찾는 것은, 성경을 찾는 훈련이기도 하다. 많은 교인들이 고작 주일 하루 교회에서 성경을 살펴보는 경우,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성경을 찾는 방법과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점도 생각해야 한다.

**함부로 정죄하는 것을 조심해야 함** 아주 부득이한 상황으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로 성경책과 찬송책을 대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에, 함부로 정죄하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 깜박하고 들고 오지 않았거나, 아직 이런 문화적 차이를 잘 몰라서 그럴 수 있기 때문이다. 문명의 기기를 잘 활용해 개인적으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이용해서 성경책과 찬송가를 사용할 수 있다. 지하철에서나 집에서 읽고 목상하는데 사용한다면 충분히 권장할 일이다. 하지만 공예배에서는 절제가 필요하다. 모든 것이 기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므로(고전 6:12; 10:23), 때로는 연약한 이들을 고려하여 조금은 수고를 행하는 것이 좋겠다.

- 손재익 목사, [특강 예배모법 특강] 저자

##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환영과      성경의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하나님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교제의 식탁      예배후 주일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사역 / 행사

2 월은 성령님의 충만과 능력으로 시역하며 목표를 이루는 ‘기도의 달’ 이었습니다.

3 월은 ‘현신의 달’입니다. 사랑과 섬김으로 풍성한 교회와 성도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바라보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전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됩니다.

- 오늘은 선교주일이며 금주는 선교주간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 전도자, 성도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 팀사역 세미나가 시작됩니다.  
주제 : 팀사역이란?  
일정 : 3월 첫 주일 오후부터 12주과정 (인도: 김윤경 사모)
- WOW 모임 : 3월 2일(토)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 교회와 성도,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 기도합시다. 노환과 지병으로 투병중인 부모님과 가족들, 친구와 이웃들의 조속한 건강 회복, 치료와 퇴원, 의료진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 입원치료 중이던 유효진 자매가 소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장례일정을 마쳤습니다. 유족들을 위한 기도와 위로에 감사합니다.

★ 교우 동정 : 구은강 집사 - 가족 건강을 위해 한국 방문 중

★ 이달의 생일 축하 - 정시현(2.5) 구민경(2.28) 유동숙(2.24)

예배와 양육, 말씀과 기도, 교제와 나눔, 세상과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축복된 교회,  
건강하게 성장하는 섬김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 기  
도  
제  
목**
-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목회자들의 강건함과 사역을 위해
  - 박진성 집사의 완전한 회복과 최운정 학생(눈)의 빠른 치유를 위해
  -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정홍렬 목사가 건강(신장기능)을 유지하도록
  - 교우들의 사업이 믿음 안에 청지기의 사명으로 운영, 발전하도록
  - 좋은 English Ministry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보내 주시도록
  - 주종 성경연구(소선지서/에스라/느헤미야/부흥강의들)를 위해

예 배 섬 김 이	2/17	2/24	3/3	3/10
	김훈태집사	오정은집사	정홍렬목사	구은강집사
금요예배기도	2/22	3/1	3/8	3/15
	최내권집사	최선윤집사	구 민집사	구은강집사
주일헌금위원	2/17	2/24	3/3	3/10
	최내권집사/유동숙집사		유덕하집사/구은강집사	
주일안내위원	2월		3월	
		구 민집사		김훈태집사

## 말씀노트

### 말씀노트 Sermon Note

〈지난주일 말씀요약〉 성도의 인성은 영성을 반영합니다. / 고린도전서 4:6-16

누구든지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면 낫던 감성지수도 자연히 높아진다. 깊은 영성을 가진 사람의 감성지수는 높고, 낮은 감성지수를 가진 사람의 영성은 깊을 수 없다. 인간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반영한다. 고린도교회 성도의 경우, 서로의 차이를 수용하지 못하고 서로를 대적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교만했으며, 말씀 밖에서 살며 세상에 속한 삶을 살았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 후 변화되고 영성이 깊어지고 감성도 발달하게 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겸손과 사랑으로 영성과 감성이 바닥이던 성도에게 본을 보였다. 우리 역시 깊은 영성으로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좋은 감성으로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자.

### 나의 신앙과 인생의 발자취는? / 고린도전서 4:14-16

세상의 그 어떤 부모보다 더한 아버이의 사랑으로 바울은 성도를 돌보았습니다.  
바울은 어떤 아버였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낳았습니다.

믿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돌보았습니다.

선배로서 가장 좋은 길(인생의 참 의미와 목적)을 보였습니다.

어떤 부모입니까? 예수님을 본받으며 살리는 아름다운 신앙의 발자취를 남기는 가장 좋은 아버이가 됩시다.

## 말씀요약

### 나의 신앙과 인생의 발자취는? / 고린도전서 4:14-16

바울 사도는 아버이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를 사랑하며 돌보았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부모보다 더한 아버지의 사랑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보여준 아버지의 마음에 관하여 살펴보며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합니다. 육신의 아버지만 아비가 아닙니다. 바울은 그들의 영적 아버였습니다. 온갖 우상 숭배와 죄악이 가득한 도시였던 고린도에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모른 채 살고 있던 그들을 예수께 인도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영적으로 낳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돌보며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사역을 위해 멀리 떠나 있으면서도 계속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노심초사했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애단치고 권면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그들의 아비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누군가에게 예수님에 관하여 가르쳐 줄 수도 있고, 성경 지식을 전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사랑이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낳고,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돌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가 인도하는대로 잘 따라오며 순종할 때뿐만 아니라 잘못된 길을 가며 제멋대로 굴 때도 끝까지 사랑으로 인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영적 아버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녀라면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의 성도를 향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영적 아비가 된 자신을 모범으로 삼아 자신의 행실을 본받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 평생을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 애를 쓴 사람입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만을 따라 산 사람입니다. 고린도의 성도들이 바울을 본받아 산다면,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인생을 사는 것이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의 신앙선배로 그들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따라 올 수 있도록 길을 닦으며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바울 사도가 나는 예수님을 본받으며 사니 너희는 이런 나를 본받으며 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자녀들에게 너희도 나처럼 예수님을 본받으며 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발자취를 남기며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이는 단지 우리의 자녀들만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신앙생활을 늦게 시작한 형제, 자매들,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에게도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가졌던 그 아비의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합니다. 아비의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고, 아비의 마음으로 인내하고, 아비의 마음으로 권면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가졌던 그 아비의 마음으로 가정과 이웃,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 말씀적용과 실천노트

### Application Note



# 섬김의 교회

church of servants

기쁨, 희년, 사랑

February 24, 2019

섬기는 목회자 : 김성배 목사  
847-691-7846 / [www.churchofservant.com](http://www.churchofservant.com)  
600 Deerfield Road, Deerfield, Illinois 60015

## 섬김의 교회는...

- ▶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 하나님의 사랑에 빛진 교회의 사람으로, 섬김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 ▶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쉬지 않고 성장합니다.
- ▶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한 교회와 가정, 개인의 생활을 소망합니다.
- ▶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역과 삶의 영역에서 세웁니다.

## 예배 및 모임 안내

주 일 예배 / LORD'S DAY WORSHIP : SUNDAY 11:30 AM

주 일 학교 / SUNDAY SCHOOL : SUNDAY 11:00 AM

생명의 삶 나눔 / QT SHARING : SUNDAY 10:15 AM

금요찬양예배 / FRIDAY SERVICES : FRIDAY 8:00 PM

새벽경건회 / EARLY MORNING DEVOTIONS : TUESDAY~FRIDAY 6:00 AM  
SATURDAY 7:00 AM

WOW / WOMEN OF WORSHIP : SATURDAY 11:00 AM

성경공부 / BIBLE STUDIES : SUNDAY 1:30 PM  
WEDNESDAY 7:00 PM

일대일 제자훈련 / DISCIPLESHIP CLASSES : WEDNESDAY 7:30 PM

2019년 2월 2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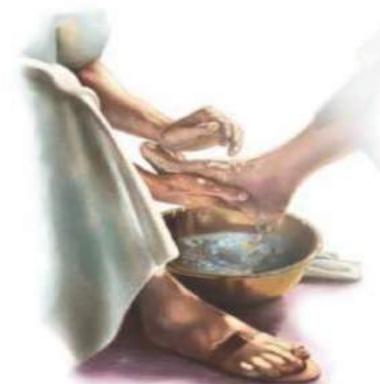
5-8호

기도의 달  
선교주일 / 선교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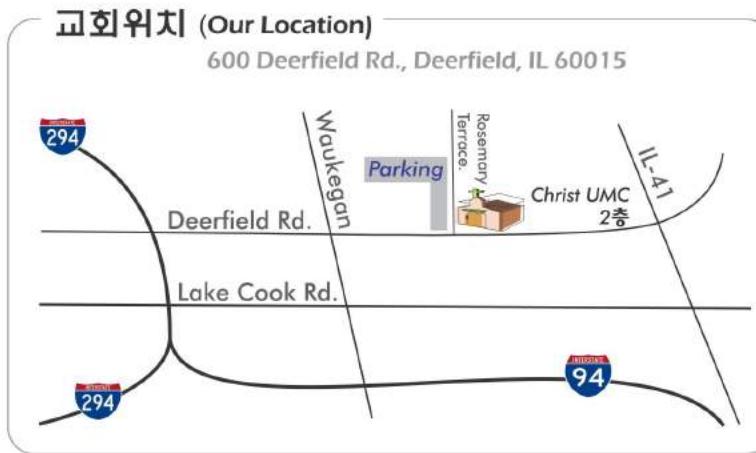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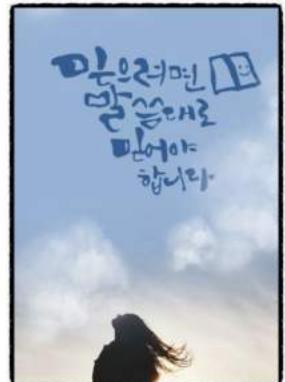
꿈이 있는 교회

섬김이 있는 교회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교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14-15



[www.churchofservant.com](http://www.churchofservant.com)